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3년 12월5일
음력 11월 3일
일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9호

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 제정 공포 만 50세 이상 모범교도 스승입문의 길 열어



▲ 효감종령 예하계 선서를 하는 신규 스승들

불교총지중 총리원은 제149회 원의회를 개최하고 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을 제정하였다.
총지중 교도 중 50세 이상으로 해행이 원만하여 타의 모범되고, 스승으로서 자질이 있는 분들의 스승 입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총리원장 법등 정사는 “이번 규정 공포로 평생을 진언 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50세 이상 교도들에게 스승 입문 기회를 부여하여 스승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제자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룰 수 있도록 종단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 스승으로 입문하는 모범교도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친 후 승직자로 임명된다. 처음은 현직 스승의 규정을 준용하며, 모든 스승들과 같이 총지중의 종헌, 종법, 규칙, 명등 중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퇴임 후 기로원법 및 기타 기로 스승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의료비 및 장례비는 일부 지원 받는다. 총리원은 승직에 관심 있는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랐다.
총리원-장동욱 과장

불교총지중 필리핀태풍 구호 기금 모금 운동 전개

전국 서원당에서 모금 운동 시작

불교총지중 총리원은 지난 11월 8일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복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교도들이 동참하는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총리원장 법등 정사는 “전 불교계가 동참하는 필리핀 태풍 이재민 돕기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서원당에 모금함을 마련하고, 총리원 모금 계좌를 통해 동참을 하실 수 있습니다.”며 대비반행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했다.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를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기상 관측사상 최대의 크기로 초속 379Km의 강풍으로 가옥의 지붕을 날렸다. 또한 6미터 높이의 해일이 발생 지역을 초토화 시켰다. 1만 2천명의 사상자와 42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하나로 우리가 어려울 때 파병으로 국도를 지킨 우방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구호 성금 마련에 교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김종열 기자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중국 해남성 산야 대회 봉행 한중일 삼국 대표단 500여명 참석,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각국 참가 대표단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개막식이 11월 27일 오전 9시 중국 해남성 산야시 탕그릴라 호텔 대연회장에서 봉행되었다.
개막식에는 한국측 대표로 종단협의회 자승 스님을 단장으로 총지중 총리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중앙총의회 부의장 법우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와 각 종단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예불의식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종단협

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2500여 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행하신 무한한 자비심을 따라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이 모든 중생들과 상호 연관된 ‘인드라’의 관계임을 성찰하여 모두가 바라는 불국토의 지구촌을 위해 성심으로 정진해나가기 바랍니다.”며 대회의 개최사를 했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전인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중일 불교 교류의 역사가 유구하고 전통 법의가 심후합니다. 삼국의 스님들은 고대로부터 온갖 고

난을 이겨내고 동서서행(東渡西行)의 구법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동아시아와 삼국에 비치게 하였습니다.”며 오랜 전통과 대승불교의 정신을 같이한 한중일 삼국의 불교 우호 교류가 더욱 발전하기를 서원했다.
일한중국제불교교류협회 부회장 야스다 에이신 개회식 인사로 “해남도는 간진와조(鑑眞和上)가 바쁜 계율을 일본에 전하기 위해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 일 년 간 체류한 인연 깊은 땅입니다.”며 일본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종단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어 인간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를 지라도 불시에 다가오는 자연재해 만큼은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산업의 발달과 과학의 편안함에 기대어서 살려져 지마는 이기심 속에서 망각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앞으로도 계속 재해를 불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며 자연재해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인과적 재해이기에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자연치유가 곧 인간 치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며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모든 중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승불교의 기본 정

신을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스님은 기조 발언을 통해 “현대 과학 기술은 날마다 발전되어 가지만 자연재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인구 밀도의 증가, 기초시설의 확대, 경제생산의 집중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의연한 인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고 과학과 경제의 발전도 자연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술세미나에서 한국 측은 천대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의 「자연재해 생존자들에게 대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조계종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장 서광 스님의 「불교심리치유의 확대와 글로벌화를 위한 모색」을 발표했다.
중국 하이난 산야-김종열 기자

중국 측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의 「자연재해 후 불법의 심령구조」와 해남 산야 남산사 방장 인순 스님의 「중생 본위의 보살 정신으로 재해 후 심령구조에 나서자」를 일본 측은 일한중국제불교협회 상임이사 임정교성회 경도교회 교회장 사토 마사히로 스님과 평간사 부집사 오타 나베 노부야 스님이 「자연재해 이후의 마음의 구제」를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개막식과 학술세미나는 삼국의 공동선언과 협의서 서명 및 교환으로 끝을 냈다. 오후에는 남산사로 이동하여 삼국 예불의식 봉행과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어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108미터의 해수면 관음상을 참배했다.(관련기사 5.6.7면)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태풍 하이옌 피해 필리핀 구호 기금 모금 운동



지난 11월 8일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를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기상 관측사상 최대의 크기로 초속 379Km의 강풍으로 가옥의 지붕을 날렸습니다. 또한 6미터 높이의 해일이 발생 지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1만 2천명의 사상자와 4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하나로 우리가 어려울 때 파병으로 국도를 지킨 우방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구호 성금 마련에 교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구호성금 모금기간: 총기42년 12월 2일 ~ 12월 15일
필리핀 돕기 성금계좌: 우리은행 1005-502-388941 예금주: 불교총지중

※ 각 서원당에서 모금된 성금은 12월 15일 이후 성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들이 직접 입금도 가능합니다.

한국불교미륵종 만암당 송정 대종사 입적 영결식과 다비식은 김해 관음정사에서 11월13일 봉행



▲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소감을 말하는 자승 스님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겸 한일불교문화교류연맹 사무총장인 만암당 송정 대종사가 지난 11월 9일 오후 5시 김해 관음정사에서 입적했다.

만암당 송정 대종사는 1986년 관음정사를 창건하고 김해경찰서 경승실장, 김해시암연합회 상임부회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위원,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설립 초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회주 종호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흥과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남정 스님 등이 참석하였다.

미륵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덕은 스님의 행사 소개에 이어 제주 관음사 회주 종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송정 대종사는 이 땅에 미륵의 세상을 열기 위해 먼저오신 선지자로 불법의 세계가 융성한 불국도를 건립하려 하셨다."며 스님의 높은 뜻과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의 조사를 대신 읽은 흥과 스님은 조사에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군소종단 화합에 앞장섰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은 한국불교의 큰 손실입니다. 부디 극락왕생 하시기를 합장 발원합니다."라며 조사를 올렸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은 은 11월 12일 총무부장 인선 정사가 대표로 관음정사를 조문하였다.

다비식은 미륵전(템플스테이관) 뒤편 양지바른 곳에 마련된 연화대에서 봉행되었다. 사원을 한번 둘러본 영정을 앞세운 만장 행렬은 다비장에 모여 거화의를 치렀다. 문도대표와 각 종단 큰스님의 거화의식으로 스님은 육신의 틀을 벗고 연화장의 세계로 올랐다.

경남 김해=김종열 기자

천태종 석용 스님 지화 전시회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11일부터



▲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50주기 추념불사

종이꽃이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며 화사하게 피어났다. 예로부터 공중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돼 왔던 지화(紙花)다.

천태종 송탄 송덕사 주지 석용 스님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담한 갤러리에서

'종이, 꽃으로 피다'를 타이틀로 지화 11월 11일 오전 11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전시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잔치상에 올라갔던 지화들이다. 노란색은 양파와 치자로 빨강색은 소목(蘇木), 보라색은 머루와 지초로 물들이는 등 모두 산과 들에 피어 있는 초목을 이용해 종이를 염색했다. 30~40여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꽃 모양에 맞게 종이를 재단하고, 염색해서 말리고, 칼로 살을 접는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이다.

석용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잔치상에 사용됐던 꽃들 위주로 작품을 만들었다"며 "민간에서 주로 사용됐던 꽃을 이용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지화를 만든 이유는 승속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석용 스님의 지화 작품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김종열 기자

제4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봉행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자 천도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 스님)는 11월 29일 오후 2시 통도사일산포교원 여래사에서 제4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승의 날은 1968년 5명의 군승법사가 육군에 입관함으로써 군불교역사의 태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스님,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육군 제30사단 사단장 육군소장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 예비역불자회 임원, 재경지역 군법당 신도 5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제1기 군승법사인 김병식, 이

지행 법사와 제2기 김선근, 재원스님 등 예비역 군승 16명이 동참하여 그 뜻을 더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군포교는 군승 파견 45주년을 맞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승들은 이 중요한 책무를 위법망구의 자세로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 할 것입니다."며 군 포교의 일선에서 지원팀장의 역할에 매진 할것을 다짐했다.

법회에서는 군포교 일선에서 포교에 공로가 많은 군승법사에게 포상과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상에는 일각 심학섭 법사 포교원장 상에는 범행 김민석, 진상 김창모 법사 군종교구장 상에는 지용 구윤호, 상원 윤국진, 호택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법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전 군승법사가 동참한 군승포살법회, 순직군승 합동추모제, 군승회의를 봉행했다.

일산 여래사=김종열 기자

진각종 대구교구 연합 '금강합창단' 정기연주회



▲ 제15회 부산 불교 팔관회(삼광사)

진각종 대구교구 연합 금강합창단(지도스승 관명 정사·단장 증익제 보살)은 11월 2일 오후 5시 대구시 동구 효목동 아양아

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진기 67년도 정기연주회 '심인의 소리' 향연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연주회에서 금강합창단은 '내 마음의 부처', '법고소리', '사랑하는 이여', '항수'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열창을 선보였다. 특히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신심을 키우는 '법륜합창단'을 및 '37종음단'과 '진스카이어', 대구대 이상직 교수의 색소폰 연주 등의 찬조 출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는 "깊어 가는 가을 저녁 금강합창단 정기연주회 '심인의 소리' 향연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합창단 관계자들과 단원의 노고에 인사를 전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인사말에서 전하며 "오늘 소리로 공감한 작은 믿음을 실천행으로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복덕을 이웃과 나누고 사회의 큰 복덕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종열 기자

제2회 천태종 명상센터 프로그램 개발 학술세미나 11월 16일 분당 대광사서 개최

2014년 완공 목표로 분당 대광사에 건립 중인 천태종 명상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11월 16일 오전 11시 경내 대강의실에서 '천태종 명상센터의 프로그램과 운영 시스템'을 주제로 제2회 명상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날 △종교별 명상·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경향(방곡사 한신대 강사) △불교 명상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차차서 동방대학원대 교수) △원불교 명상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장진영 원광대 HK연구교수) △성남시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프로그램, 홍보, 운영을 중심으로(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사찰의 프로그램, 홍보, 운영을 중심으로(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의 글이 발표된다.

김종열 기자

총지종보를 인터넷으로 만나세요
실시간 불교계 소식 인터넷 총지종보 www.chongjinews.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 | | | | | | | |
|-----|-----|-------|--------|--------|-----|-------|--------|
| 개천사 | 이희권 | 11/1 | 10,000 | 만보사 | 정덕순 | 10/28 | 10,000 |
| 개천사 | 강순시 | 11/13 | 10,000 | 밀인사 | 정정희 | 10/30 | 5,000 |
| 건화사 | 이연호 | 11/13 | 5,000 | 백월사 | 조영주 | 11/5 | 10,000 |
| 관성사 | 황성녀 | 10/28 | 10,000 | 벽룡사 | 무명씨 | 11/4 | 10,000 |
| 관성사 | 김병석 | 10/30 | 10,000 | 벽룡사 | 무명씨 | 11/4 | 10,000 |
| 관성사 | 박현숙 | 10/31 | 10,000 | 벽룡사 | 양정현 | 11/18 | 10,000 |
| 관성사 | 이성은 | 11/20 | 10,000 | 벽룡사 | 양지현 | 11/18 | 10,000 |
| 관성사 | 인선 | 11/25 | 20,000 | 삼밀사 | 하명순 | 11/15 | 10,000 |
| 기로 | 대관 | 11/25 | 10,000 | 선립사 | 심지장 | 11/19 | 10,000 |
| 기로 | 대자행 | 11/25 | 10,000 | 성화사 | 무명씨 | 11/15 | 40,000 |
| 기로 | 밀공정 | 11/25 | 10,000 | 수인사 | 무명씨 | 11/7 | 10,000 |
| 기로 | 법수원 | 11/25 | 10,000 | 수인사 | 정순득 | 11/13 | 10,000 |
| 기로 | 법장화 | 11/25 | 10,000 | 승천사 | 원봉 | 11/14 | 10,000 |
| 기로 | 법지원 | 11/25 | 10,000 | 승천사 | 지선행 | 11/14 | 10,000 |
| 기로 | 불멸심 | 11/25 | 10,000 | 시법사 | 선도원 | 11/25 | 10,000 |
| 기로 | 사홍화 | 11/25 | 10,000 | 실보사 | 이순옥 | 11/4 | 10,000 |
| 기로 | 상지화 | 11/25 | 10,000 | 실지사 | 무명씨 | 10/30 | 10,000 |
| 기로 | 수증원 | 11/25 | 10,000 | 실지사 | 정우석 | 11/13 | 10,000 |
| 기로 | 총지화 | 11/25 | 10,000 | 실지사 | 이순명 | 11/14 | 50,000 |
| 기로 | 해정 | 11/5 | 10,000 | 일원어린이집 | | | |
| 단음사 | 법연지 | 11/18 | 10,000 | | 최복란 | 10/28 | 10,000 |

| | | | |
|--------|-------|--------|--------|
| 일원어린이집 | | | |
| 하재희 | 10/28 | 30,000 | |
| 하미영 | 10/28 | 10,000 | |
| 이지민 | 10/28 | 10,000 | |
| 구미자 | 10/31 | 10,000 | |
| 이준동 | 11/25 | 10,000 | |
| 김지연 | 11/25 | 10,000 | |
| 자석사 | 씨씨에이치 | 11/15 | 10,000 |
| 정심사 | 원정연 | 11/6 | 30,000 |
| 지인사 | 승효계 | 11/14 | 10,000 |
| 지인사 | 지성 | 11/14 | 10,000 |
| 지인사 | 허성동 | 11/19 | 30,000 |
| 총지사 | 법등 | 11/5 | 30,000 |
| 해정사 | 조성기 | 11/13 | 10,000 |
| 해정사 | 최영례 | 11/20 | 10,000 |
| 화음사 | 강순란 | 11/4 | 5,000 |
| 흥국사 | 지정 | 11/14 | 20,000 |
| | 김갑선 | 11/19 | 10,000 |

10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산일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부산·경남교구 인도 성지순례 봉행

단장 수현 정사 외 15명 동참



▲ 인도 성지순례에 나선 부산,경남교구 스승들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시정 정사)는 11월 12-23일까지 인도 및 네팔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수현 화음사 주교를 단장으로 정정심 전수, 자선화 전수, 원송 정사, 인법계 전수, 정원심 전수, 우인 정사, 도현 정사, 법상 정사, 도우 정사 등 스승들과 교도들이 동참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참배한 이번 순례에서 성도지인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수현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종 불사 의례로 봉행된 법회에서 동참 대중들은 총지종 교세발전과 부처님 성도지 법연 세세생생을 서원하였다.

참배단 단장 수현 정사는 “이번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밀교의 진언염송을 통한 즉신성불의 대업을 이루기를 서원했습니다.”며 순례의 소감을 밝혔다.

부산 정각사=법상 정사

종립 동해중학교 소식

제150차, 제151차 이사회 개최 정관개정 및 명예퇴직교원 심의 결의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동해중학교 이사회(이사장 지성 정사)는 11월 11일과 22일 제150차, 제151차 이사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 지성 정사, 선도원 전수, 정인화 전수, 인선 정사, 원당 정사, 강경중, 김두남, 정영문 이사가 참석했다.

제150차 이사회에서는 일반적 명예퇴직에 관한 정관의 일부를 추가 개정하고 이를 심의 결의하였다. 제151차에서는 음악담당 김광무 선생님의 명예퇴직 건과 학교회기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 결의하고 통과 시켰다.

동해중= 법선 정사

교직원 불자회 11월 정기 법회 봉행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정사 설법



▲ 종립동해중 교직원 불자회 11월 정기 법회

종립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 11월 정기법회가 11월 11일 동해중학교 서원당 동해사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정사, 선도원 전수, 총무부장 인선 정사, 밀인사 원당 정사 등 스승들과 교직원불자회 탁상달 교감 외 15명이 동참했다.

동해중학교 정교 법선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종 정통 의례에 따른 불사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법회에 법사로 설법한 지성 정사는 “불교에서는 수처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주인이 되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 지도에 있어 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하면 바로 그것이 불교적인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동해사의 주교라는 마음으로 항상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서원당 동해사는 학생들의 불교적 인성지도와 불교어머니회, 교직원 불자회의 법회와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 동해중= 김종열 기자

괴산 최주옥 보살 총지사에 김장 김치 기증 약 150Kg, 총지사와 어려운 교도들과 나누어

11월 22일 충북 괴산에 거주하는 최주옥 보살이 총지사에 김장 김치 약 150Kg을 기증했다.

일교차가 큰 괴산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속이 짙 찬 무공해 배추와 직접 기른 고추와 양념으로 담근 김치로 총지사와 어려운 교도들에게 전달되었다.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해마다 직접 정성으로 기른 재료로 만든 김치를 교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최주옥 보살님 가족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하시도록 서원드립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주옥 보살은 해마다 총지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를 어려운 교도들과 나누고 있다.

총지사=이인성 통신원



▲ 괴산 최주옥 보살이 담근 김치 전달식

종유재산 조사단 첫 현장 조사 시행

총지종 통리원은 제 130차 승단총회에 보고되어 지난 10월 29일 구성된 「종유재산조사단」의 첫 현장조사가 11월 13-14일 양일간 괴산수련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단에는 단장 범우 정사, 부단장 법일 정사, 위원 원당 정사, 승원 정사, 덕광 정사 와 재단사무국 이수협 계장, 총무부

권혁준 교무가 참가했다. 괴산수련원 일대 종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파악을 먼저 한 후 현 수련원을 중심으로 일대 산5면지의 27필지에 대한 토지 현황을 파악했다.

유지재단사무국=이수협 계장

총지종 법장원 도서 대출 안내

불교총지종 법장원이 보유한 도서를 총지종 스승과 교도들 에게 대출해 드립니다.

* 대상 : 불교총지종 스승 및 교도

* 대출 방법 :

1. 총지종 홈페이지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가능

-법장원도서(불교전문도서)

-불광 도서(불교일반도서)

도서 목록에 있는 도서 중 대출 할 책을 지정해 대출 담당자 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출된 도서의 배송

-대출자가 스승님일 경우 : 소속 사원으로 배송

-대출자가 교도님일 경우 : 소속 사원으로 배송해 스승님께서 교도께 전달보낼 때는 중단

부담, 반납하실 때는 대출자 부담)

3. 대출 기간 : 대여일로부터 1개월

4. 대출 담당자 및 기타 문의사항:
법장원 배공주 계장 02) 552-1080

불교어머니회 2013년 2학기 산사 순례 행사 지리산 연곡사, 천은사 및 진주 청곡사 순례



▲ 동해중 불교어머니회 산사 순례(지리산 연곡사)

동해중 불교어머니회(회장 박진숙)는 교직원 불자회와 함께 11월 23일 지리산 연곡사, 천은사 및 진주 청곡사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지난 1학기 경주 남산 성지 순례에 이어

두 번째다. 불교어머니회 박진숙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원과 교사불자회 탁상달(교감), 김재근(불교어머니회 담당), 김진화(교무부장), 송인근(진로부장), 박성진, 김지현 선생님이 동참 했다.

불교어머니회는 구례의 연곡사, 천은사에 이어 성삼재를 넘어서 남원의 실상사와 벽송사를 참배하기로 하였으나 눈으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경남 진주 문산면 청곡사를 순례지로 선택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다녀온 이번 산사 순례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득한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진주 문산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제302호)를 친견하면서 순례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지력을 높이 11미터의 거대한 화폭으로 옮긴 괘불탱에서 세세연연 이어온 법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일행들은 다음 순례에도 꼭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동해중=김재근 선생님

제42회 창교절

| 일 시 | 총기 42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종조 친필 육자진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종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총기 42년 창교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종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불교의 선정 24

사념처 수행

법념처(1) - 관오개(觀五蓋)

「관오개는 중생의 의근 가운데에 뿌리 내린 5가지 근본 번뇌를 관찰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오개(五蓋)와 오선지(五禪支)

오개는 중생의 의근 가운데에 뿌리 내린 근본 번뇌로서 중생의 심식을 가리는 5가지 미혹이다. 오개는 정도(正道)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번뇌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육진(六塵)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본다. '개(蓋)'라는 말은 '덮어 가린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원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가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거울 위에 먼지가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 원래 갖추어진 광명과 청정, 그리고 지혜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라고 한다. 오개는 탐욕개(貪欲蓋), 진에개(瞋恚蓋), 혼면개(昏眠蓋), 도거악작개(掉舉惡作蓋), 의개(疑蓋)의 5가지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오개의 장애는 참나적으로 일어나며 오개로 인하여 선정이나 수행이 방해받기 때문에 오개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수행에 진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행자는 오개를 눌러 오개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정을 범어로는 dhyana(드히야나)라고 하며 선나(禪那)라고 음사했다. 우리말로는 '선나'이지만 중국의 옛 발음(吳音)으로는 '디엔나'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원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那)'자가 탈락하여 '선(禪)'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정(禪定)이라는 말은 음과 의미를 함께 쓴 것으로 그냥 줄여서 선이라고 한다. 현대 중국어로는 '찬',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발음되며 우리는 '선'이라고 읽고 있다. 선나나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오개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지혜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나에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4가지가 있다. 오개를 대치(對治)·억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함)하기 위하여서는 정(定), 희(喜), 락(樂), 심(尋), 사(伺)의 5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오선지(五禪支)라 한다. 오선지가 완성된 것이 초선이다. 오선지 가운데에서 정선지는 탐욕개를 대치하고 희선지는 진에개를, 낙선지는 도거악작개를, 심선지는 혼면개를, 사선지는 의개를 대치한다.

수행자에게는 오개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오개가 사라질 때는 사라지는 원인과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개를 관하는 관건이다. 말하자면 오개가 생겨서 멀하는 전 과정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개는 각각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탐욕개(貪欲蓋)

여기에서 말하는 탐욕은 의근(意根) 가운데에 잠복해 있는 무명번뇌로서 의근은 외경에 그달리지 않고도 자기의 기억과 환상으로 탐욕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대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술 생각이 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근 가운데의 탐욕은 우리의 근본 미혹으로 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우리의 선심을 가린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탐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살피고 탐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지켜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법념처 가운데에서의 탐욕개와 진에개의 관찰, 그리고 심념처 가운데의 탐심과 진심의 관찰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심념처든 법념처든 모두 심리현상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생멸하는 것을 살피는 것에는 닮음이 없지만 양자의 차이는 법념처를 닦을 때는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의 관찰을 더욱 강조한다. 자상은 어떤 현상의 특징과 그 작용, 그것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 등을 관찰하는 것이고 공상은 무상, 고, 무아 등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찰이다. 자상과 공상의 관찰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지혜를 증장하게 하여준다.

탐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거하는데, 하나는 외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탐욕 자체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펴 소멸할 때까지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다. 《대정경(大正念經)》의 주석서에는 탐욕을 다스리는 6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1은 몸의 더러움을 관하는 관신부정(觀身不淨), 2는 육체의 근본적인 더러움을 관하는 부정관(不淨觀), 3은 욕근을 잘 지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근율의(修根律儀), 4는 음식을 절제하여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음식지량(飲食知量), 5는 선지식과 가까이 하기, 6은 적당한 말을 하며 해탈도와 상응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진에개(瞋恚蓋)

경전에는 '한번 진심을 일으키면 백만의 장애문이 열린다(一念瞋心起, 百萬障門開)'고 했다. 한번 화를 내면 불법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악도에 떨어지는 인을 짓게 된다는 말씀이다.

진에는 화를 내는 것 뿐 아니라 미워하며 초조해 하고 긴장하거나 좌절하는 모든 감정이 포함된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명료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가 날 때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가라 앉았을 때에는 '내 마음에 화가 없어졌구나'라고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주석서에는 진에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1은 자비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비관(慈心觀)을 할 것, 2는 자비심을 기르는 선정을 할 것, 3은 적합한 언어와 해탈도에 상응하는 말을 할 것, 4는 일체 중생이 자기의 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 5는 선지식을 친할 것, 6은 자비심의 좋은 점과 진에심의 나쁜 점에 대해 관찰할 것 등이다.

| 오선지(五禪支)와 오개(五蓋) | |
|---|--|
| : 정(定), 희(喜), 락(樂), 심(尋), 사(伺)는 초선(初禪)의 오지로서 매 선지(禪支)는 특정의 개(蓋)를 대치한다 | |
| 오선지 (五禪支) | 오개 (五蓋) |
| 1. 정선지(定禪支)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심일경성(心一境性) | 탐욕개(貪欲蓋)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욕심으로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갈애와 탐욕을 대치(對治)한다 |
| 2. 희선지(喜禪支) 기쁜 마음으로 신체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한다 | 진에개(瞋恚蓋)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진에가 깰 수 없으므로 희선지로서 대치한다 |
| 3. 낙선지(樂禪支) 희선지에 따라 오는 것으로 수행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낀다 | 도거악작개(掉舉惡作蓋) 낙선지로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게 불유쾌한 감정을 살필 수 있으며 후회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
| 4. 심선지(尋禪支) 마음이 소연(所緣)으로 향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핀다 | 혼면개(昏眠蓋) 심선지로서 마음을 열고 활기차게 하면 혼침수면의 흐리멍덩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
| 5. 사선지(伺禪支) 소연을 더욱 세밀하게 살핀다. 심선지에서 더 나아가 단계 | 의개(疑蓋) 사(伺)는 마음을 극히 세밀하게 살피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소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

혼면개(昏眠蓋)

혼면개는 수행 중에 흔히 만나게 되는 것으로서 정신이 흐리고 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혼침수면(昏沈睡眠)이라고도 하는데 혼침수면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것 또한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졸릴 때는 졸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졸리는 것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불교에서는 혼면의 원인을 신체가 무기력하거나 심심하거나 게으름이 나거나 식사 후 졸리거나 마음이 느슨해질 때 오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침은 그다지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소홀히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늘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혼침을 떨쳐 내는 방법에도 6가지가 있는데 1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여 과식하지 않는 것이며, 2는 달이나 태양, 밝은 등불을 바라보는 광명상(光明相)을 이용할 것, 3은 자세를 바꿔볼 것, 4는 넓은 곳에 앉아 볼 것, 5는 선지식과 친근할 것, 6은 적합한 언어와 해탈도에 상응하는 말을 할 것 등이다.

도거악작개(掉舉惡作蓋)

도거악작개는 도회개(掉悔蓋)라고도 하는데 '도(掉)'라는 것은 내심의 격동과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다. '회(悔)'는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이나 악한 일, 혹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을 하는 것이다. 도회를 물리치는 방법은 이치에 맞게 사유하여 내심의 평정을 찾는 것이며 도회가 일어나고 사라지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기에도 6가지 방법이 있는데 1은 불법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며, 2는 수행이 깊은 사람에게 해아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묻는 것이며, 3은 계율을 잘 이해하는 것이며, 4는 계를 지키면서 연장자나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며, 5는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며, 6은 적합한 언어와 해탈도에 상응하는 말을 할 것 등이다.

의개(疑蓋)

의개는 불·법·승 삼보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며 수행과 수행의 주제 등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의혹 그 자체에 대해 이치에 맞게 사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개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에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사라질 때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의개를 물리치는 방법에도 6가지가 있는데 1은 불법에 대해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며, 2는 수행이 깊은 사람에게 삼보에 대해 묻는 것이며, 3은 계율을 잘 이해하는 것이며, 4는 삼보를 정신(淨信;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믿는 것)하는 것이며, 5는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며, 6은 적합한 언어와 해탈도에 상응하는 말을 할 것 등이다.

오개(五蓋)와 칠개(七蓋)

오개에서 혼면개를 혼침과 수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회개도 도거와 악작으로 나눌 수 있다. 혼침과 수면은 다른 것이지만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묶은

오개 대치의 6 가지 방법

| |
|---|
| 탐욕개 ① 관신부정(觀身不淨) ② 부정관(不淨觀) ③ 수근율의(修根律儀) ④ 음식의 양을 조절[음식지량(飲食知量)] ⑤ 선지식과 친한다 ⑥ 적당한 언어(적합한 말을 하며 해탈도와 상응하는 말) |
| 진에개 ① 자비관(慈心觀) ② 자비심으로 참선 ③ 적당한 언어 ④ 일체 중생이 자신의 업의 주인이라고 사유 ⑤ 선지식과 친한다 ⑥ 자비심의 좋은 점과 진에심의 나쁜 점을 관찰 |
| 혼면개 ① 음식의 조절 ② 광명상(光明相) ③ 자세를 바꾼다 ④ 넓은 트인 곳에 머무른다 ⑤ 선지식과 친한다 ⑥ 적당한 언어 |
| 도거악작개 ① 법을 많이 듣고 알려고 한다 ② 수행이 깊은 이에게 해아 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묻는다 ③ 계율을 이해한다 ④ 연장자나 덕이 있는 자와 함께 계를 지킨다 ⑤ 선지식과 친한다 ⑥ 적당한 언어 |
| 의개 ① 불법을 많이 배운다 ② 수행이 깊은 이에게 삼보에 대해 묻는다 ③ 계율을 잘 이해한다 ④ 삼보를 정신(淨信)한다 ⑤ 선지식과 친한다 ⑥ 적당한 언어 |

것이며 도회도 도거와 추회(追悔)로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번뇌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데 묶은 것이다. 그래서 오개를 칠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혼면개를 혼침개와 수면개로 나누고 도거악작개를 도거와 악작(추회)개로 나누어 나머지 3개와 합쳐 칠개로 부르는 것이다.

오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깊은 알아차림을 통하여 항상 몸과 마음의 변화 상태를 통찰해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파악할 때 모든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해탈이 가능해진다.

해남도 조선촌 천인갱 합동 추모법회 봉행

전쟁이 끝나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외로운 고혼들.



▲ 난징촌 천인갱 전경
합동추모법회

중국 해남성 산야시 난딩촌(南丁村)에 위치한 조선촌(朝鮮村) 천인갱(千人坑) 합동추모법회가 11월 25일 봉행되었다. 사전 계획에는 한국 대표단 전원이 참가하는 위령제를 봉행 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국대표단은 각 종단 대표와 취재 기자 등 총 30명에 한해 출입 허락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대표단은 높게 자란 풀숲을 뚫고 기념 비 앞에 설 수 있었다. 종단협의회 부회장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대종 총무원장 도정스님, 총지종 총무원장 범등 정사 등 각 종단 대표와 취재기자 5명이 동참한 추모법회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의 집공으로 열렸다. 반야심경 봉독, 축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천대종 총무원장 도정스님, 유가족 대표 이강희 여사와 한광수씨의 헌화가 이어졌다.

청수에 이어 1943년 강제 징용되어 조선보국대로 해남도 삼아시 능수비행장 건설현장에서 2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고 한기석씨의 장남 한광수씨의 추모사가 낭독 되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승과의 연을 다하신 부친에 대한 절절한 사연과 평생을 남편대신 아들을 바라보며



▲ 천인갱 유허비

살아온 노부인의 사연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법성계 독송을 끝으로 법회를 모두마치고, 동참한 대표단은 천인갱 주변을 돌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캘리포니아 거주)씨의 증언에 의하면 “석록철광에만 1천명의 조선인징용자가 채광작업에 동원되었으며, 탈출하려던 동포들이 처형되었다. 해남도에는 우리 말고도 조선에서 끌려온 강제징용자들이 많았다” 고 한다. 조선인 징용자 중에서도 수행자로 구성된 조선보국대 2,000명과 조선인 일반



▲ 합동 추모법회를 봉행하는 각 종단 대표들

해남도 조선촌 천인갱(千人坑)이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는 최대 600만명(일본으로 끌려간 137만명, 한국내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430만명, 군인, 군속, 위안부가 37만명)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해남도를 침략한 일제는 군수품 생산을 위한 자원약탈과 군사 시설물 건설을 위해 조선과 대만, 중국 상해, 복건, 홍콩과 영국 및 오세아니아병사 포로 등 2만 명의 징용자를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해남도 현지인들 또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금의 삼아시의 관문인 삼아공항 활주로나, 중심도로인 중산로 또한 조선인 징용자들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해남도 전체 강제징용자 2만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조선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1941년 19살 나이에 일반징용자로 끌려왔다 탈출하여 해남도 산 속에서 살다 1946년 국민당의 도움으로 귀국했던 장달웅(張達雄-



▲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각 종단 대표들

징용자가 수천이라고 해야 할 정확한 숫자는 좀 더 많은 연구조사가 진행되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보국대는 일제강점기 이래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행자들을 감형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해남도로 강제 징용한 사례이다. 이들은 일반 징용자와



▲ 추모사를 올리는 유가족 대표 한광수씨

확실히 구분되는 파란 반소매 상의 뒤에 ‘조선보국대’라고 쓰고 2명이 한조가 되어 쇠사슬에 연결돼 끌려왔다. 이들은 일반 징용자와 현지인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은 조선인 보국대를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일본군의 ‘귀환보고서’에는 조선보국대 소속 조선인은 658명만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조선촌에서 학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동안의 조사와 현장 증언을 토대로 파악 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뒤 현 난딩촌(南丁村) 부근 기슭에서 일본군들의 만행을 은폐하고자 천인갱 구덩이를 파고 일본도로 참수하거나 휘발유로 불태우는 등 수 백명을 집단학살하여 안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1년 1월 재미교포 서재홍씨가 천인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사재를 털어 비석을 세우고, 당시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께 요청하여 불국사 말사 스님 등 18명이 처음으로 천인갱에서 천도재를 봉행했다. 당시 천인갱 일부를 발굴하여 약 109위의 유골을 수습하였고 근처 납골당을 세워 안치하였다. 이후 성역화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은 중단되고 천인갱은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지금은 삼아시의 적극적인 건설 개발로 천인갱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 당국은 이곳에서 발굴된 유골이 조선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냐는 논리로 이번 합동위령제를 불허했다. 이는 양국의 호우 협력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중국 하이난 산야시 난징촌-김종열 기자

실지사 신축불사에 동참하시어 불도(佛道)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실지사 신축 조감도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비밀의 법장을 펼치시고, 밀교 법문을 설하셨던 도량 「실지사」 원정 대성사의 숨결과 가르침이 녹아있는 실지사 신축불사에 종도(宗徒)들의 소중한 보시를 권선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보시가 법보시(法布施)요, 법보시에 재보시(財布施)를 더하면, 현세에 재난소멸과 일체서원을 이루게 된다.

보시금은 사원으로 직접 전달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시금을 내실 때, 보시자의 이름, 불공해드리고 싶은 분의 간지(띠)와 이름, 서원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 농협은행 317-0004-3542-81 예금주 (재) 불교총지중 실지사

☎ 02-983-1492 주교 : 법 우 정사 010-3401-6772
인지심 전수 010-9501-6772

밀법도량 불교총지중 실지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9동 133-9

실지사 주교 : 법우정사 / 인지심 전수

기로스승 연등원 지수 / 신정회장 : 인명화 합장

제16차 한·중·일 불교문화교

개막식 및 공동 학술세미나

제16차 한중일 불교문화교류 대회 한국대표단 (단장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100여명은 11월 26일 중국 해남성 산야시 랑글라 호텔 대연회장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갔다. 불교총지종은 통리원장 법등 정사를 단장으로 총무부장 인선 정사, 중앙총의회 부의장 범우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가 참가했다.

11월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막식과 함께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국 측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의 「자연재해 후 불법의 심령구조」와 해남 산야 남산사 방장 인순 스님의 「중생 본위의 보살 정신으로 재해 후 심령구조에 나서자」를, 일본 측은 한중일교류협회 상임이사 입정교성회 경도교회 교회장 사토 마사히로 스님과 평간사 부집사 오타나베 노부야 스님이 「자연재해 이후의 마음의 구제」를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개막식과 학술세미나는 삼국의 공동선언과 협의회서 서명 및 교환으로 끝을 맺었다.



▲ 제16차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 개막식



▲ 제 16차 한중일 불교대회 공식 기념촬영



▲ 한중일 공동 선언문 발표



▲ 남산사 금당으로 오르는 한국 불교 대표단



▲ 천인갱 합동 추모법회



▲ 추모사를 낭독하는 유가족 대표와 각 종단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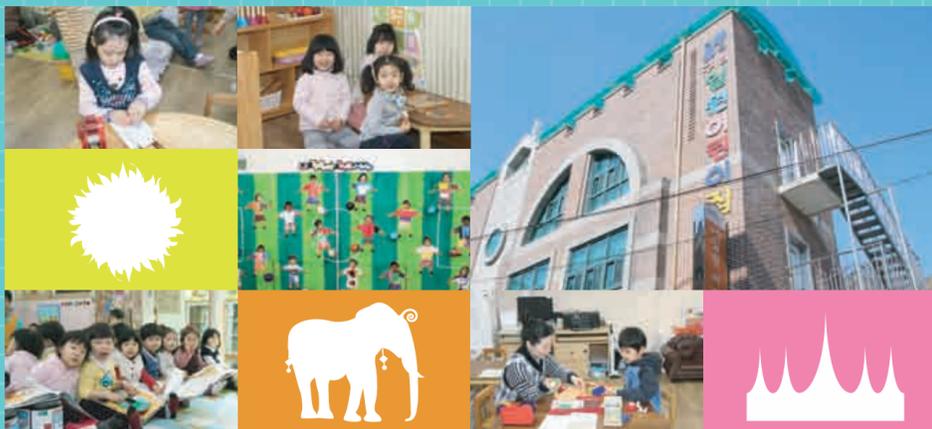
조선촌 천인갱 합동 참배

11월 25일 30명의 종단협 부회장 태고종 도산스님, 천태종 도정스님 상임이사 총지종 법등 정사 등 한국불교대표단이 조선보국대로 강제징용에 끌려와,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천인갱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높게 자란 풀숲을 헤치고 기념비 앞에서 합동 추모재를 봉행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의 집공으로 열린 추모재에서는 조선보국대로 끌려와 22살의 청춘을 마감한 고 한기석씨의 외아들 한광수씨와 부인 이강희 여사가 참석하여 추모사를 낭독했다.

참석한 스님들은 중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항의하고, 앞으로 추모 성지화 작업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인들이 바로 알기를 바랐다. 또한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전 서원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만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류 대회 중국 해남성 산야 대회



▲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총지종 스승들

남산사 금당에서 한·중·일 예불 및 해수 삼면 관음보살상 참배

11월 27일 오후 한·중·일 대표단은 해남성 최대의 사찰인 남산사를 참배했다. 남산사의 주전인 금당에서 각국 전통의 방식으로 예불을 봉행하고, 삼국의 화합과 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경내 5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여 남산사가 베푸는 저녁 만찬을 가졌다. 다양한 채식 요리로 참가자들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풀 수 있는 자리였다.

저녁 만찬 후 남산사의 자랑인 높이 108미터의 해수 삼면관세음보살상을 참배했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이 조성된 불상은 그 내부에 33 관음응신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들을 모시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법당 입구에 조성된 준제 관음이 눈길을 끌었다.



▲ 남산사 금당 공식 예불 후 총지종 승단 기념촬영



▲ 해수삼면관세음보살상을 참배 후



▲ 대소동천 동굴법당 앞에서



▲ 열대산림공원 정상에서



▲ 해수삼면관세음보살상 아래 법당 입구 준제관음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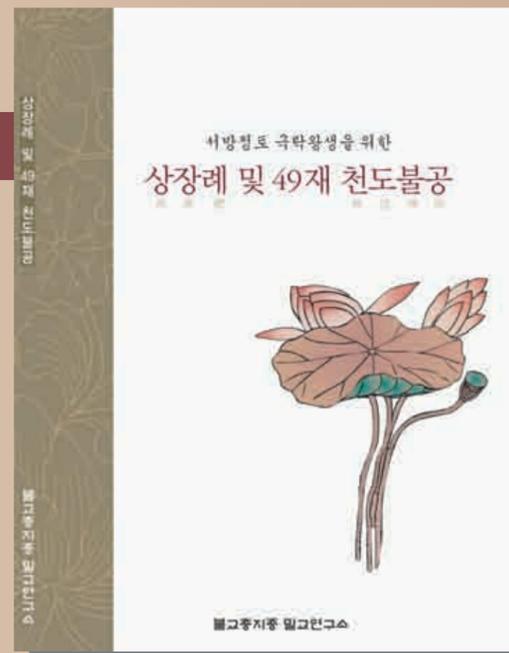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비매품 /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20)(끝)**

지장보살 (地藏菩薩)

육도 중생들을 구제하는 대자비(大慈悲)의 보살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다. 널리 유포되어 있는 신앙 또한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이다. 그래서 매월 음력 18일이면 지장재일이라 하여 사찰에 기도를 드리고, 음력 24일이면 사찰에서 관음재일 기도를 올린다. 그만큼 중생과 가깝게 다가 서 있는 신앙들이다.

이 가운데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건져내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력을 세우신 보살이다. 대자비로써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계시는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하신 후로부터 미래세에 미륵보살이 나타나실 때까지의 무불시대(無佛時代)에 계시며 중생제도를 부촉 받은 보살이다. 사바세계 일체중생들에게는 고맙기 그지없는 보살이다. 마지막 한 명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영원히 보살로 남겠다는 지장보살은 가히 대원본존(大願本尊)의 보살이라 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지옥 중생을 제도코자 지옥 문전에서 대비(大悲)의 눈물로써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보살이다.

이러한 지장보살은 대개 극락전(極樂殿)이나 미타전(彌陀殿)의 아미타삼존불로 모셔지거나 지장전(地藏殿)이나 명부전(冥府殿)에 주존(主尊)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로도 모셔지는 경우도 있다.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일 경우는 대웅전에 모셔지는데 일반적으로 석가모니삼존불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좌우협시보살이 되지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인 경우도 더러 있다.

밀교에서는 지장보살이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지장원(地藏院)'의 주존(主尊)으로 모셔진다.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12대원 가운데 열 번째의 그림[院]에 속한다. 지장원(地藏院)은 관음보살의 자비심(慈悲心)에 근거하여 현실

적인 실천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생제도의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곳이다. 바로 지장보살이 계신 곳이 기 때문이다.

지장신앙은 중국의 도교신앙과 접목되어 시왕(十王)이 모셔졌다

지장보살은 대개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주존(主尊)으로 모셔지는데, 두 전각은 사후세계를 나타내어 돌아가신 분을 육도윤회에서 건져내고자 기도하는 공간이란 점에서 기능은 동일하나 명부전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달랐다. 지금은 명부전이 지장보살로 중심이 되었지만 원래 주인공은 지장보살이 아니라 도교(道敎)의 신들이었다. 이 신들이 열 분으로 시왕(十王)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사후세계와 윤회사상에 혼합되어 지장신앙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도교신앙과 불교신앙이 접목된 것이다.

확실하지 않으나 전각에 모셔진 지장보살의 주존(主尊) 형태를 살펴보면 대개 조선 중기까지는 명부전에 시왕이 모셔졌고, 지장보살은 지장전에 모셔졌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지장보살과 시왕이 함께 모셔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개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하거나 고난에 빠졌을 때 일수록 미륵신앙이나 지장신앙 등이 유행했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선시대에는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유난히 혹독한 전쟁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현실도피 심리와 다음 생에 대한 동경이 크게 작용되어 지장신앙과 시왕이 숭앙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명부전은 대부분 지장보살과 시왕이 함께 모셔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곳이어서 그런 것일까. 지장전이나 명부전은 사찰 경내의 한쪽

구석이나 대웅전의 뒤쪽 한적한 곳에 세워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각 내부는 항상 어둡고 그늘져서 음산하기까지 하다. 마치 저승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랄까. 섬뜩함을 종종 느낀다.

지장(地藏)은 '대지(大地)를 포함하는 자' 를 뜻함

지장보살은 산스크리트어 Kṣitigarbha라 하는데, 음역(音譯)하여 지장이라 하며, '대지(大地)를 포함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장(地藏)은 땅[地]과 무관하지 않다. 흔히 지옥세계라 하면 땅속의 지하세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천상세계는 하늘에 있고, 지옥세계는 땅속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지장을 달리 지지(持地)라고도 부른다. 땅을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장보살은 현재 도리천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에 따라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살피고 계신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형상은 왼손에 여의보당(如意寶幢)이 있는 연꽃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둥근 구슬 보석(月輪)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나라 이후부터 머리를 깎은 민머리의 비구형(比丘形)으로서 왼손에 구슬보석, 오른손에는 석장(錫杖)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장보살상이 되었다. 이 가운데 구슬 보석은 월륜(月輪) 또는 일륜(日輪)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대일경소」에서 지장보살의 무한한 공덕을 산출하는 것을 여의보주(如意寶珠)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구슬보석은 보배구슬, 즉 여의보주(如意寶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장보살상은 보주(寶珠)를 쥐하고 있다. 혹은 동자를 안은 지장보살도 더러 있다. 이는 일본불교에서도 보이는데, 일본불교의 '수자(水子)', 즉 '미즈코' 의식은 동자와 지장보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포항 수인사의 득락전(得樂殿)에 모셔진 지장보살상

밀교에서는 지장보살을 비원금강(悲願金剛)이라 부른다

밀교에서는 지장보살을 비원금강(悲願金剛)이라 부른다. 중생구제를 위한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원(願)을 세운 보살이라 하여 비원금강(悲願金剛)이라 한 것이다. 또는 비민금강(悲愍金剛)·여원금강(與願金剛)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다른 이름일뿐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다.

지장보살을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인데, 갖추어서 『지장보살본원경』이라 부른다. 이 경은 지장보살이 백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내용으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해탈코자 큰 서원을 세운 것을 13품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장십익(地藏十益)은 지장보살을 대표하는 내용이다. 지장십익(地藏十益)이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동·철 등으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첫째는 토지에 풍년들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셋째는 먼저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가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이 더하며,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여섯째는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여덟째는 사나운 꿈이 끊어지며,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하고,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재불공을 올릴 때는 지장경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망자나 불공자에게 좋

다. 십익(十益) 이외도 이십팔익(二十八益)이 있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지장경』에는 중생의 업연(業緣)과 무간 지옥의 죄업, 죄업의 과보, 지옥의 모습, 지장보살의 발원, 지옥의 죄보, 지옥의 이름, 공덕의 과보 등이 설해져 있으며, 특히 중생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죄업을 설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존중치 않거나, 절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살생하거나, 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계율을 어겨 온갖 나쁜 짓을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법회시간에 『지장경』을 독송하고 나면 신도들이 종종 “너무 무시무시하고 겁난다”고 말한다. 죄를 짓고는 절대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지은 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므로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으니 달게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죄업 과보를 받더라도 적게 받거나 또는 어느 정도 비켜 갈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참회' 로써 두터운 죄업장을 깨끗이 걷어내고, 진언염송과 불공기도, 선행으로 현세(現世)의 업(業) 뿐만 아니라 속세(宿世)의 업(業)까지 씻어낼 수 있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재난은 소멸되고 일체 서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쳐야 비로소 맑고 밝은 하늘이 열리는 이치와 같다.

〈이번호를 끝으로 '법경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이야기'의 연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선운사 지장보살상. 보주(寶珠) 대신 법륜(法輪)을 들고 있다.



▲ 속초 보광사의 지장보살상. 지물(持物)없이 수인(手印)만 취한 경우도 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 앨범 '풍경소리 37집' 발표

노래하는 마음은 늘 아름다움이지요!



좋은 벗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창작곡 서른일곱번째 앨범 '풍경소리 37집'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하여 발표해 온 좋은 벗 풍경소리의 작품집이다.

산사에 소복소복 겨울친구 인사합니다.
산사에 소복소복 보시의 씨앗이 인사하는 따뜻한 겨울 온 밤을 지새며 착한 맘 고운 맘 고이 담아 부처님 댁가는

풍경입니다. 좋은 벗 풍경소리는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벗 풍경소리는 "풍경소리 37집은 겨울연수회와 강습회를 위한 교재로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 눈처럼 빛나는 꼬마풍경들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며 "앨범 안에는 <빛이 나는 우리가 되자> <보시> 추운겨울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덕신스님 작사의 <그리워 그리워> 등 총 8곡의 노래와 노래의 MR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 찬불동요 창작곡 앨범 '풍경소리 37집' 수록곡
- 1. 빛이 나는 우리가 되자 <작사 박성희 / 작곡 정유태 / 노래 이시윤>
- 2. 보 시 <작사 대엽스님 / 작곡 이종만 / 노래 강소리 유수민 이리수 이소진 이시윤 김주남선생님>
- 3. 인 사 <작사 박성희 / 작곡 이종만 / 노래 이현정>
- 4. 눈 오는 밤 <작사 · 작곡 최미선 / 노래 강소리>
- 5. 산사에 소복소복 <작사 · 작곡 이민영 / 노래 이수진 이민영선생님>
- 6. 겨울친구 <작사 · 작곡 최미선 / 노래 정채은>
- 7. 부처님 씨앗 이야기 <작사 · 작곡 이민영 / 노래 이수진>
- 8. 그리워 그리워 <작사 덕신스님 / 작곡 민선희 / 노래 이서이>

(주)쓰리디렉터채널 '세계최대의 불교유적,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 3D다큐멘터리 영상제작

(주)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11월 25일 낮12시 기자회견에서 "세계최대의 불교유적,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산 위의 사원) 3D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며 "지금은 편집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초에는 제작 발표 및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내년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방영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세계최대의 불교유적,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진흥협회의 3D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고 있는 3D 다큐멘터리다"며 "국내 불교관련 콘텐츠 최초 3D로 제작되며, 보로부두르를 다룬 다큐멘터리로도 최초의 3D 영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제작이 완료되면 EBS 및 한국스카이HD방송을 통해 방영될 계획이다"며 "현재 촬영을 끝낸 상태이며, 11월 중순부터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종립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을 현장 나레이터와 인터뷰어로 모시고 마지막 3차 현장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주)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인도네시아 종교협의회 불교단체 대표자는 이 프로그램 제작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불자간의 협조와 교류를 요청한 상태이다"며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과 협력을 통해 한니 양국의 영상, 종교, 문화 교류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세영 대표는 "3D 콘텐츠야말로 불교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것이다"며 "앞으로 사찰 공간의 아름다움과 한국 불교의 깊이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연출을 맡고 있는 최세영 대표는 "한국의 명찰, '석굴암', '황룡사대중을 찾아서' '한국의 석등, 일본속의 한국불교' '1400년만의 귀향-선광사 비물'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했다. 또 '고려대장경'으로 1996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고, 2011년 5부작 대하다큐멘터리 '대장경로드'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부분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세계최대 불교유적 보로부두르

* 보로부두르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불교국가 사일렌드라 왕국에 의해 8세기경 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이다. 화산재에 덮여 1000여 년간 땅각의 시간을 보낸 후 19세기말 재발견됐다. 특히, 올해는 최초 발굴이 시작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의미가 깊다.

'산 위의 사원'을 뜻하는 보로부두르는 모두 1만2천 평방미터, 높이 약 45미터, 1460개의 조각상, 504종의 불상, 72기의 불탑, 약 350만 톤의 돌로 이루어져 세기의 불가사의로 꼽힌다. 사일렌드라 왕국은 막강한 해상력으로 말라카 해협일대를 지배하였으며, 해양 실크로드의 맹주로서 또 불교의 외호자로서 보로부두르라는 위대한 불적을 이루었다.

보로부두르가 조성될 당시 보로부두르는 주변은 큰 호수였었다. 현재는 육지가 되어 농토가 되었지만 보로부두르는 호수 가운데 연꽃처럼 지어졌다. 그래서 주변의 마을들은 물과 관련한 마을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을 건너는 마을, 물 가운데 마을, 배를 타고 가는 마을들로 불린다.

불자생활법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저는 김씨 소유 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1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계약금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일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17조).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1 kg 20,000원

성분 및 효능

- 시력개선 효과 ● 면역력, 기억력 강화 ●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 노회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 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다시 읽는 우리시조

단란(단란)

지은아: 이영도



▲ 수 놓는 여인

여류 시조시인 이영도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시조시인 이호우의 친동생이다. 호는 정운(정운)이다. 여성적 정서를 섬세한 감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다. 이 작품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밤의 어둠조차 애정의 병풍이 되어 모녀를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사없는 깔끔한 시어의 표현으로 진솔한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수(수)를 놓고
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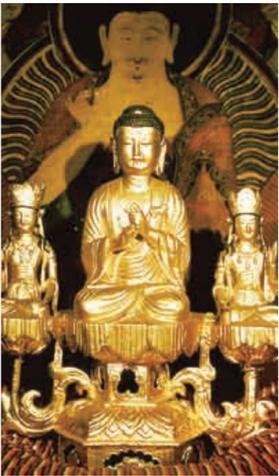
작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어둠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 모녀는 함께 있어서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늑하고 포근함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409호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唐津 靈塔寺 金銅毘盧遮那佛三尊坐像)

소재지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139-33, 영탑사
시대 : 고려시대



▲ 보물 제 409호 당진 영탑사 비로자나불삼존좌상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唐津 靈塔寺 金銅毘盧遮那佛三尊坐像)은 신라말에 도선국사가 장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영탑사에 모신 불상으로, 8각형의 연꽃무늬의 대좌 위에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이 있고 양 옆으로 협시보살이 있는 삼존불(三尊佛) 구도이다.

본존불은 머리에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큼직하다. 사각형의 얼굴은 원만한 느낌을 주며 선으로 표현된 옷주름은 도식화되어 보인다. 상반신은 길고 큼직한 데 비하여 하반신이 무척 위축되어 있어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무릎 높이도 상반신에 비하여 낮아서 몸의 균형이 고르지 못하다. 가슴 역시 평면적이며 하반신 처리는 둔중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수법은 고려 중기 이후 나타나는 특징이다. 손은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모양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금동불상은 구도와 형태 등에서 고려불상의 특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불교총전 불타편 23p-6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히가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생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영화에서 불교보기 <31>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이탈리아 거장 '난니 모레티'의 <아들의 방>



삶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다.

2001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 <아들의 방>은 로베르토 베니니와 함께 이탈리아의 대표적 감독인 난니 모레티가 만든 작품으로 또한 그가 주인공 '조반니' 역을 맡았다. 처음엔 주인공이 감독 자신인줄 모르고, '정말 지적인 느낌의 배우'라고만 생각했다.

주인공 조반니는 사는 게 몹시 지겨운 남자다. 그래서 그는 지겨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에 매달린다. 그의 신발장은 여러 종류의 운동화로 가득 차 있다. 테니스화, 조깅화, 농구화, 축구화 등. 그는 운동을 하면서 지겹고 재미없는 일상을 이겨내는 것이다.

정신상담의인 그는 자기 일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환자들과의 상담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 그는 사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신상담의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을 버리고 직업도 없는 남자라는 다소 냉소적인 대우를 선택할 그런 용기는 없었다.

영화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주로 조반니의 직장생활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조반니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보여준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겨움을 나서로 달래고, 권태에 시달리고,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조반니를 보면서 사회적 페르소나에 억눌린 개인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후반부는, 사회적 자아가 무참하게 깨지면서 개인적 자아가 전면으로 드러난다.

아들이 죽던 날 조반니는 아들과 조깅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갑자기 출장 진료 요청이 들어왔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더 중요시 하는 조반니는 아들과의 약속을 접고 출장 진료를 가버린다. 물론 그의 내면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길 바랐지만 그가 더 중요시하는 건 사회적 자아에 행복보다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공교롭게 그날, 아들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일하러 간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스쿠버다이빙을 갔다가 목숨을 잃는다. 아들의 죽음 후 조반니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 그리고 모든 게 완벽했던 아들이 죽기 전의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깊은 상실감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자 모든 게 변한다. 그는 직장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직장을 그만둔다. 지혜롭고 현명하던 아내도 아들의 과거 여자 친구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딸도 운동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싸워 퇴장 당한다.

그러나 행복은 결여의 순간에 찾아온다. 아들이 죽은 후 그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고, 누구든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자기가 좋으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통렬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걸치레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약간씩 행복한 느낌,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아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반니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궁궐까지 차로 태어다 준다. 아들의 여자 친구가 새로 사귄 남자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데 배웅을 나온 것이다. 이전



의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처녀가 집을 나와 그것도 남자와 여행을 떠나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보수적인 어른의 사고에 길들여진 예전의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됐고,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배웅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다.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배웅하면서 그는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영화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사회적 자아로부터 독립한 현재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쳤고, 그러면서 행복을 얻게 된 것이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지향하다가 자신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삶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의 열쇠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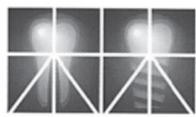
<아들의 방>에서 조반니는, 근본자아로 살아가 때 영혼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예전에 여기서 다뤘던 영화 <체리향기>에서 노인이 했던 말, 맛있는 체리를 먹을 때, 무더운 여름에 차가운 웅달쌌을 맛볼 때, 아름다운 달빛을 구경할 때, 이런 경우 나타나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본자아는 사회적 자아와 다른 원리로 존재한다. 사회적 자아가 타인을 의식하고, 보다 많은 것을 축적해가면서 얻어지는 자아라면, 근본자아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순간에 머물면서 얻어지는 자아다. 김은주(자유기고가)

얼마 전 신문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쓴 칼럼 한 편을 읽었다. 그는 칼럼에서 햇빛과 바람에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고 특별한 고백을 했다. 아침마다 차를 탈 때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이 충분히 돌 때를 기다리는 동안 창문을 열어놓으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느끼는 동안 불편하던 마음이 잠시 가라앉는 경험을 한다고 말했다.

좀 충격이었다. 크게 성공한 만큼 큰 기쁨들이 도처에 널려있을 것 같은데 기껏 바람과 햇빛에서 행복을 얻는다니... 그런데 이 영화 <아들의 방>의 조반니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고백을 이해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 또한 사회적 자아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적 자아는 결코 인간에게 제대로 된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근원적 이유 때문이었다.

영화 <아들의 방>(이탈리아, 2001)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가진 존재라는 걸 의식하면서 오히려 삶을 되찾아가는 영화다. 사회적 가치관과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던 남자가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전면 수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불교충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충지종 교도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괴산 중원사 및 수련원 신축불사

불교총지종의 오랜 숙원인 괴산 중원사 및 수련원 신축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전 스승과 교도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용맹정진 서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일대 태장계 만다라 중대팔엽원이 봉우리로 둘러싼 비로자나 부처님 상주처의 너른 터에 건립되는 이번 불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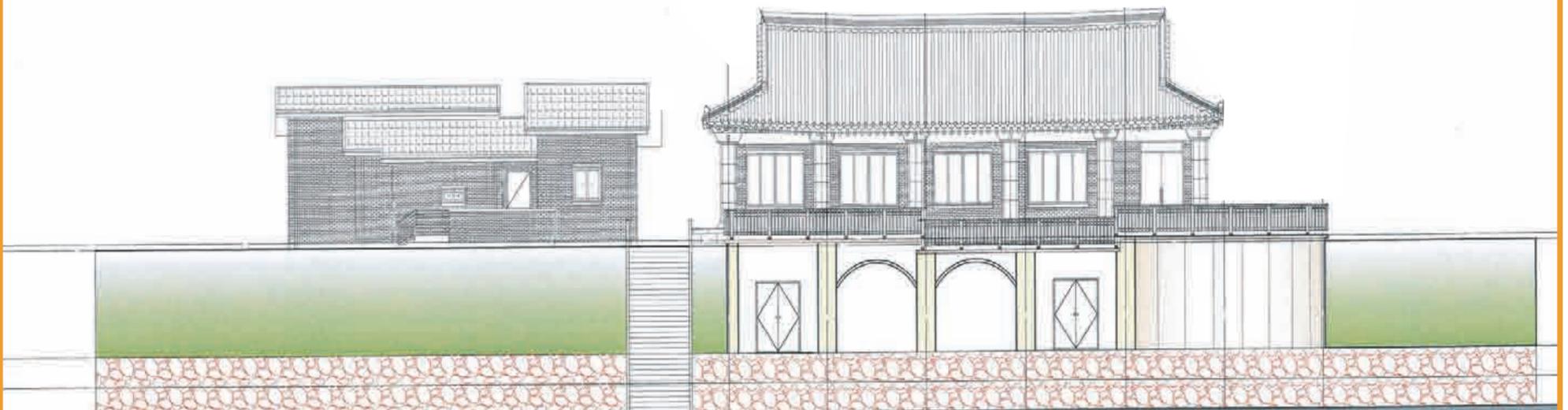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큰 신심을 일으켜서 못과 숲이 있는 동산을 보시하여 사방의 모든 스승님과 스님들이 경행(經行)하고 쉬고 머무는데 쓰게 하면, 이것이 제일의 무진공덕이니 큰 과보가 있으며, 만약 사람이 큰 신심을 일으켜서 그 숲속에 정사(精舍)를 짓고 여러 스승님과 스님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머물게 하면, 이것이 제이의 무진공덕이니 큰 과보가 있다. (존나경. 尊那經)』 불교총전 p.579 「보시의 공덕」 19. 큰 과보를 얻는 다섯 가지 보시

『존나경』의 말씀처럼 모든 스승과 교도 및 모든 불자들이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의 ‘진언염송의 정진 수행 도량 괴산 중원사와 수련원’ 신축 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재난 소멸과 복덕을 증장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동참계좌 : 우리은행 122-094583-01-001
(예금주: 불교총지종)

동참문의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중원사 서원당 및 사택 신축 조감도

